

## [2019-2-17] 주일 말씀 녹취록

말씀 : 강만석 목사님

제목 :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

본문 : 히브리서 12:1-13

1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4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5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7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9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11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12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교회 잘 나가던 어떤 40대 남자가 주일 날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때를 씹니다 그러자 평생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일 예배에 참석한 80대 어머니가 교회 가야 된다고 아들한테 노발대발 하십니다. 그래도 아들은 안 가려고 계속 때를 씹니다 어머니가 큰소리로 도대체 이제까지 잘 다니더니 안 가려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 가려는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 오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오지 않겠다고 때를 쓰는 우리 램턴트들은 없었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를 책으로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보면은 각종 모임에 참석이 너무 많고 강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특별히 말 많은 목사가 싫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들은 목사가 말 많은게 싫기는 싫은 모양입니다 그 저도 말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 하는 것이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제대로 된 사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마음 터놓고 깊이 얘기할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77 가지를 나열해 놓은 것을 쪽 보면 참 재미 있기도 합니다 아들이 교회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왜 지금까지 잘 가다가 갑자기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어머니가 세 가지만 말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첫째 주일 날은 늦게까지 자야 하는데 일찍 일어나라고 계속 깨우니까 싫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일날이라도 하루 좀 쉬고 싶은데 하루 종일 교회 붙들어 놓으니까 참 싫다는 것입니다 싫고 세째는 예배 드릴 때 목사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너무 길고 설교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80대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가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주일날 교회 가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말해 줍니다 첫째는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야 필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사람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서원 기도를 하여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바친 80대 노모가 긴 한숨을 푹 쉬며 셋째는 너는 담임목사 아니냐 지금 이 40대는 목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인데 이 팔십대 어머니가 너는 담임목사라고 말합니다 네가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웠을까요?

우리 집에도 어느날 아들이 교회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목사 아들이야” 교회 나가야 해. 목사의 아들이 교회 안나가면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말 하겠어 아빠 설교하면 교인들이 네 자식이나 잘 가르치라고 하지 않겠냐 그러자 다른 교회 나가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뭤데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어린 자신에게 목사의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교인들의 무언의 시선이 참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경 쓰지 마 그런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교회도 보면 목사님의 자녀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까지 4대째 예수를 믿고 네가 믿어야 5대까지 예수를 믿는 거야 하면서 설득해 봐도 아들의 삶은 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일에 최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저의 삶을 비추어 볼때 예수 잘 믿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저보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저보다 훌륭하고 잘난 사람 참 많습니다 내 주위에 내가 보면 “아 저분은 나보다 더 훨씬 가정이나 모든 게 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별로 뛰어난지 못하고 잘난 것도 없지만 순수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딱 하나 비록 조금이지만 남보다도 잘하고 뛰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조건없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복음에 유익되는 일이라면 나를 무한정으로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게 내 욕심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늘 고백하면서 그 그리스도로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삶이 부족하지만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예수 믿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복음 속에 들어오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됩니다 부족함 없는 삶 후회 없는 삶 만족 만족 대 만족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삶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성경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 살면서 승리하는 건 당연합니다 뭐 일이 안 되면은 내팽겨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어있다면 복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 우여곡절을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견딜줄 알아야 합니다. 견디고 이겨 낼때 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들이 하나님 잃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너 교회 열심히 나가 믿음 가지고 살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 바로 이것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놓친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 속에 정말 자리잡고 있었다면 우리는 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여기에서 넘어갔습니다 우리에게 말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해와 신뢰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면서 믿고 따라 가는 것이 만족하지 않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나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케 되었기에 복음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고 마음껏 네 인생을 누리며 살아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면 사실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단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싸우지 말고 피흘리기까지 작심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무너져서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싸우기를 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좀 지나친 것이라고 광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느냐고 반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것을 못 하게 하는 흑암 사단 분명히 싸워야 합니다 결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 죄 안짓고 말씀대로 살기에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저의 부모들과 저의 할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되서 사단에 속아서 저는 부모를 모르고 자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부모를 찾고 보니까 참 좋은 가정이었었는데 사단에 놀아나서 결국 내가 어렵게 자라서 결국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만은 절대 놓칠 수가 없다고 늘 고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청빈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외쳐댁니다 그것이 정직하고, 청빈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왜곡된 세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되신 비밀을 누리고 살고 있기에 깨끗하고 부자가 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살기 위해 기도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될 것이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흑암과 싸움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잘못하면 추상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와 싸울때 피흘려야 하는 구체적인 피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넘어 뜨리려는 사단과 싸울 때는 사단과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내가 먼저 넘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사단과는 아주 단호하게 물리치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그와 같은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참 대단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 자식이라고 하면 꼼짝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가를 갔는데도 아직 그대는 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돈 잘 버는 아들 이미 장모 아들이 되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 아들은 큰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대는 내 사랑이라고 외쳐대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딸 아이도 보면 지난 연말에 왔을 때 아빠 방에 있던 맛있는 초콜릿 다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었는데도 아깝지 않았습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딸아이의 마음속에 있기에 저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내 아이던 아니던 우선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속에 정말로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맘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저는 제일 우선 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영리하고 돈 많고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안 돼 있을 때는 분명히 무너질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주 크게 줍니다 한국에 한 할머니가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와 같이 살면서 손자를 보아 주었습니다 어느날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손자가 다쳤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온 며느리가 어머니 애가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무엇 했냐고 폭언을 붓습니다. 놀란 할머니가 서운해 아들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이때 아들이 엄마 당연하지 하면서 나무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아들 집에서 나와서 자신 앞으로 있는 아파트를 팔아 종적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실화입니다. 자식 사랑 끔찍한 것이 우리 부모입니다. 성경에 다윗 시대에 자식 사랑 못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윗도 자기 자식 다 잡혀가고 참 어렵고 아픔을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인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인정도 사정도 없이 예의도 법도 없이 모든 책임을 다 다윗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이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극적인 상황을 만나면 바꾸어 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살기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논하고 했던 사람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면 살인까지도합니다 지난 1월 첫째 주에 뉴스에 보니까 27살 총각이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과 혼수문제로 다투다가 여자친구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 없이 사는 인간은 사단에 속아 인생을 자신도 망치고 타인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사랑 복음을 늘 말해주고 복음속에 들어와 살도록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도와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 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놓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죄지면 죽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죄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세상 사는 승리하고 예수 안 믿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잘 되어도 어느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 깊이 있고 우리 자녀들 깊이 속에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세상과 세상식을 하나님과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버릇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과 그것이 사단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면 사단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내속에 있기에 때로는 싸우지 못하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 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서워서 싸움을 포기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산다면 결국 그는 살아남기 못하고 죽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피흘리는 한이 있어도 잠시 어떻게 되는 한이 있어도 앞에 있는 즐거움과 축복을 바라보고 죄와 불신앙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유익된다면 내가 손해가 된다 해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 해도 복음에 불리한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에 유익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기꺼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런걸 잘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시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소인배가 되지 마시고 믿음에서 항상 으뜸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분명히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복음에 유익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축복입니다 왜곡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건 참 힘이 듭니다 때로는 때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내 마음이 번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마음속에 영접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게 다 담겨 있다는 믿음을 고백 하시고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저희들은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가 나를 통해 되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 하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나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에 이것도 잡히지 않고 저것도 잡히지 않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심어 주시고 믿음 안에 우뚝 설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